

독서의 계절이라는데...

유창준 · 편집국장 chang@print.or.kr

“아, 내가 국왕이 아니었더라면!” 4백년 전, 지은 지 얼마 안된 옥스퍼드대학교 도서관을 방문한 국왕 제임스 1세는 말했다. “만일 내가 왕이 아니었다면 대학의 한사람이 되고 싶다. 만일 붙잡혀 감옥에 간다면 이 도서관에 갇혀 있고 싶다. 이들 명저의 저자와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고 싶다.” 제임스 1세와 같은 국왕이 아니더라도 세상에 책 애호가는 많다. 어느 분류에 따르면 책 애호가는 ‘책을 좋아한다’ ‘책벌레’ ‘책에 미쳤다’ 로 에스컬레이터 한다고 한다.

부인에게 혼이 나면서 용돈을 전부 책사는데 쓴 사람, 집을 팔아 책을 산 사람, 매년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포도밭을 책 한권과 교환한 프랑스 사람 등 책에 얽힌 일화는 너무도 많다. 어떤 이는 가난해서 책은 사지 못하고 책방에서 서서 읽고는 급히 집으로 돌아가 기억한 내용을 옮겨 적은 학자도 있었으며 “죽으면 책과 함께 매장해 달라”고 유언한 이도 있었다. 죽어서도 책을 읽고 싶었던 것이다. 이런 일화가 외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안중근 의사는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고 했다. 책을 읽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은 이처럼 끝이 없다.

독서율저조 이유 그런데 오늘을 사는 우리는 책읽기를 멀리하는 것 같다.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정해 책읽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의 독서율은 아주 저조하다. 출판 6개단체가 얼마전 ‘다시 책이다’의 일환으로 조사한 ‘국민독서실태조사’에 따르면 성인 43.6%가 한 달에 한 권도 책을 읽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간 평균 독서시간은 2.9시간으로 영국의 4.6시간 등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성인 4명중 3명은 1년동안 단 한번도 도서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으며, 중·고교생의 32.5%는 ‘학교에서 독서를 권하지 않는다’고 대답, 학교 독서교육의 문제점도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고교생의 53.5%, 대학생의 40%가 여가시간에 독서대신 PC통신·인터넷·게임등을 즐겨 독서량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인터넷의 폐해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나마 다행이라면 한 달에 한권 이상 책을 읽는 독서인구는 56.3%로 89년 32%, 91년 39%, 96년 43.8% 등 지난 10여년간 꾸준히 증가, 독서인구의 저변 확대는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책 속에 길이 있다 우리는 ‘책 속에 길이 있다’고 배웠다. 책 속에서 길을 찾고, 책을 통해 얻은 기본과 원칙을 지키며, 책 읽기가 이루어주는 창의력과 적응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야 한다고 듣고 있다.

그런데 왜 선진국엔 명함도 내놓기 어려울 정도의 독서율인가.

21세기에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창의력과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필요하다. 결국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기 힘들며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인프라구축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선은 정부정책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동안 정부는 경제성장 우선의 물질·물량중심 정책에 치중했을 뿐 문화발전 정책은 늘 뒷전에 머물렀다. 각종 제도와 정책, 예산이 물질적 부의 성장과 안보를 위해 집중한 결과는 과연 어떠한가? 국가 안보와 경제 발전을 위해 집중했던 정책과 예산, 인력의 1/10만이라도 독서문화를 비롯한 문화분야에 투입했다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은 달라졌을 것이다. IMF외환위기도 문화부채에서 비롯됐다는 식자들의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바로 여기서 기인한다. 국민의 정부들어 문화예산이 1조 원을 넘어섰다고는 하나 독서증진에 투입되는 금액은 그리 많지 않다.

독서율 저조를 불러오는 데는 사회환경의 문제도 심각하다. 집 주변의 환경은 책읽기를 주저하게 한다. 비디오 대여점 설치율 89.7%, 노래방 84.5%, PC방 73.1%, 비디오방 47.3%인데 반해 공공도서관은 20.5%, 마을문고 설치율은 13.2%에 불과하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거기에 난무하는 퇴폐향락 시설과 물질만능주의에 젖어있는 사회환경이 책읽기 문화를 침체시키고 있다. 사회 전반에 대한 일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올바른 독서문화의 정립은 요원하다.

또 교육제도는 어떤가? 고등학생은 대학교에, 대학생은 기업에 잘맞는 부속품을 만드는데 급급하지 않은가. 정신차릴 겨를도 없이 수시로 바뀌는 교육제도는 책읽기를 가로막는 주범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책 많이 읽기 4강’ 새로운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로 인하여 다량의 정보가 신속하게 생산, 보급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양의 정보를 선택, 분석, 평가하고 활용하는 능력과 재생산, 재창출하는 능력은 책읽기를 통해 키워진다.

특히 21세기에는 창의력과 적응력이 국가 발전의 척도가 된다. 지식 격차를 줄이고, 창의력과 적응력을 효과적으로 습득하기 위해서는 책읽기가 필요하다. 결국 독서문화의 성숙 없이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올바르게 적응하기 힘들며 국가 경쟁력을 가지기도 힘들뿐만 아니라 국가 발전도 요원하게 된다.

따라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일이야말로 그 어떤 인프라구축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리처드 라일리 미국 교육부 장관의 ‘하루 30분 책읽기의 교육혁명론’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지식 기반사회는 바로 책읽기를 통해 가능하다.

지금도 믿어지지 않을 만큼 감동적이었던 월드컵 4강. 이제 책 많이 읽기 세계 4강에 도전해 보면 어떨까.